



**다름슈타트를 향해!!**

**엘**

## 소개글

이 글은 언젠가 다름슈타트에 갔을때 제대로된 관광을 하기 위해 다름슈타트와 인근 도시를 조사한것입니다.

내용은 다름슈타트 전반,슐로스 볼프스가르텐,하일리겐베르크,로젠회에를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될 내용은 마틸데회에와 여러 다름슈타트의 유적지입니다만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1.인명과 지명표기가 잘못된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2.오타있습니다.

3.어색한 문장 역시 있습니다.

## 목차

1	한국에서 찾아보는 다름슈타트 관광정보...들어가면서	4
2	한국에서 찾아보는 다름슈타트 관광정보...1.다름슈타트의 기본적 정보	6
3	한국에서 찾아보는 다름슈타트(랑엔) 관광정보...2.슐로스 볼프스가르텐	15
4	한국에서 찾아보는 다름슈타트 관광정보...3.로젠회에(Rosenhhe)	20
5	한국에서 찾아보는 다름슈타트(유겐하임) 관광정보.4.하일리겐베르크와주변	30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스트레스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때는 글하나 잠시 써주는 센스를...π.π

제가 좋아하는 곳중 하나가 바로 헤센 대공가의 거주지가 있던 다름슈타트입니다.

다름슈타트는 1900년경에도 "작은 소도시"라고 지칭될만큼 큰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 옆의 프랑크푸르트가 큰도시였죠. 하지만 이곳은 헤센 대공령의 중심도시였기에, 이후 수많은 왕족들이 머물렀던곳이어서 외교적으로 무척이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름슈타트의 자랑거리는 두가지인데 바로 과학기술과 예술분야입니다.

이렇게 된것에는 헤센의 마지막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의 공이 큼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이며, 러시아 황후의 오빠였습니다.

그 역시 헤센대공가의 비극을 겪은 형제들중 한명이었습니다.

어린시절 동생과 어머니의 죽음 (동생이랑 놀다가 동생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1층이긴했지만 동생이 혈우병환자여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엘리스 대공비는 아픈 에른스트 루드비히를 안심시켜주려고 입맞춤해줬는데, 그때문에 디프테리아에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40대였던 아버지의 죽음, 첫번째부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했던 딸 엘리자베트의 죽음, 정치와 군대를 싫어했지만 의무로 전쟁에 참여해야했고, 누나 엘라 대공비와 동생 알렉산드라 황후의 죽음등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것은 부인과 아들 부부와 손자들 모두가 사망하는 비행기 사고를 겪기전에 죽었다는것일까요)

전 에른스트 루드비히에 대해서 첫번째 부인이었던 빅토리아 멜리타의 이야기만 잠깐 읽어서 "불성실한 남편"정도로만 이해했었는데, 1차대전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읽고 의무에 충실한 군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대전이 끝난후 대부분의 독일 공국들이 그랬던것처럼, 헤센 대공국도 공화국이 되길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혁명을 외치며 대공의 거처로 몰려갑니다. 이에 대공의 측근들은 대공과 그 가족들에게 일단 몸을 피하라고 하죠. "혁명"때문에 누나와 여동생 가족을 잃었던 대공은 자신이 위험할수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하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옥좌의 방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죠. 그의 옆에는 대공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엘레노어 대공비(에른스트 루드비히의 두번째 부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공이 있는 방까지 몰려갔는데 이때 사람들은 "대공을 몰아내자""대공을 죽여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고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온것을 보고 대공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헤센의 군복을 볼수 없다는것이 유감이오. 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해보시오. 비록 궁정에 유희거리는 하나도 없지만, 내 아내가 차정도는 내줄수 있소."

대공의 이런 말에 사람들은 모두들 조용해졌으며, 대공과 대공비에게 아무런 해도 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틈다 대공의 측근들은 대공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했고 승락받습니다.

이후 헤센 대공국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만,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공식적으로 퇴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헤센의 대공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싫어했던 정치와 군대 업무에서 물러났으며, 늘 심취했던 과학과 예술의 후원자가 됩니다. 이때문에 다름슈타트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도시가 되죠. ^^\*

다름슈타트는 작은 도시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기도 하죠. 프랑크푸르트까지만 가도 볼것이 얼마인데 다름슈타트까지 가겠습니까?... ㅎㅎㅎ

게다가 다름슈타트의 대부분의 건물은 2차대전때 폭격으로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들은 거의 복원된 건물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메리 왕비-조지5세왕비-는 "에르니-에른스트 루드비히의 애칭-가 그렇게나 꾸뻐던 모든곳이 파괴되었다고 하는구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름슈타트에 대해서는 예전에 잠깐 시청 홈페이지를 본것이 다라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가볼만한곳으로는 다름슈타트 광장에 있는 대공 루드비히2세(헤센이 대공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독일어지만 전기도 있더라구요...물론 독일어라 못읽어봤다는..)의 동상이 있고, 2차대전의 극심한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헤센 대공가의 거처중 한곳도 있습니다. 또 마틸데히에(마틸데 언덕)에 있는 결혼 서약의 탑(에른스트 루드비히가 세웠다는데, 첫번째 결혼은 깨졌으니 아마 두번째 결혼때 세운듯합니다.)과 그 옆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대공의 동생이자 러시아의 마지막 황후가 된 알렉산드라 황후와 관계있다고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헤센대공가에서 황후는 알렉산드라 황후 말고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황후 도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박물관들도 있는데, 이 박물관들은 원래 대공가에 대한 유물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왜인지 잘 모르지만 문닫았다가 리뉴얼해서 새로 개장한다는 이야기를 얼핏읽었습니다.(...아마 유물이 바뀔거라고 합니다..ㅠ.ㅠ)

다름슈타트의 대공가 묘역은 로젠히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미언덕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곳은 헤센대공가의 비극이 담긴곳이죠. 특히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대공비, 그리고 아들인 게오르그 도나투스과 부인 세실 그리고 두아들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것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름슈타트 외각에는 솔로스 볼프스가르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으로 개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헤센 대공가의 사냥터였는데, 그곳의 맨션 벽에는 왕족들이 자신의 이름을 낙서한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그림이 솔로스 볼프스가르텐에 있다고 하던데..그럼 아마 내부도 공개할듯합니다.)

결국은 뭐냐구요...

다름슈타트 가보고 싶다..이거죠..ㅠ.ㅠ

(기왕이면 스웨덴도...-0-;;)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흑...다름슈타트는 관광객이 많이 안와서 그런지 많이 없네요....저같은 사람만 좋아하나봐요..ㅠ.ㅠ

어쨌든 다름슈타트 시청홈페이지에 갔는데 영어페이지가 잘 없어서 좌절이었습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시청 홈페이지들도 관광파트들은 무조건 영어로된 페이지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쥬. 관광정보를 찾을땐 위키보다는 주로 그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데 이렇게 그나라 언어만 있다면 난감하다니까요.....)

하지만 요즘 구글의 번역기가 엄청 좋아져서 대충 문맥을 이해할정도로 번역해줍니다. (스웨덴어라면 단어찾을 용의도 있지만 독일어는 귀찮기에 대충 번역기 돌려봅니다.)

번역기로 돌린것은 아주 기본적 사항이라서 틀린것은 거의 없을겁니다만, 혹시 독일어 능력자께서 보시고 잘못된것이 있는것 같다면 과감히 지적을 해주세요...아하하...

다름슈타트 들어가면서 어떤곳인가에 대해서 이미 앞쪽에 설명했습니다. 사실 첫번째 글로 솔로스 볼프스가르텐을 적고 싶었는데, 이념의 자료들을 찾다가 독일어라..좌절중이었다쥬.

결국 다름슈타트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하다보니 다름슈타트도 나름 관광객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듯합니다만, 독일어로만 써놓으면 어찌하라고요..ㅠ.ㅠ (영어페이지를 분명 눌렀는데 독일어로 나오는것은 링크가 잘못된것 아닐까요..ㅠ.ㅠ)

## 다름슈타트에 대한 기본적 정보

다름슈타트는 헤센에 있는 작은 도시로 헤센 운트 바이 라인 대공가의 거처가 있던 중심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헤센 대공가 내지 헤센-다름슈타트로 알려져있습니다.

헤센 가문은 무척이나 오래된 독일의 왕가중 하나였습니다. 선조는 튀링겐의 란트그라프와 브라반트 공작의 후손이쥬. (제글 성인이 된 왕족들..성 엘리자베트 <http://blog.daum.net/elara1020/8464032> 의 첫번째 인물이 이 가문의 선조입니다.)

헤센의 란트그라프로 알려진 이 가문은 후에 헤센-카셀과 헤센-다름슈타트 두개의 가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헤센-다름슈타트 가문이 이 다름슈타트에 살면서 인근지역을 통치합니다.

헤센-다름슈타트가 대공가로 성장할수 있었던것은 대공 루드비히1세의 공이 컸습니다. (루이젠플라츠에 있는 청동상이 루드비히1세의 상입니다.) 이후 루드비히2세의 막내딸이 러시아의 황후가 되면서 이 작은 공국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됩니다. 이후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딸인 앨리스가 이곳의 대공과 결혼했고, 앨리스의 막내딸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후가 됩니다.



1840년대의 다름슈타트 중심가  
루이젠플라츠

다름슈타트는 매우 작은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1890년대 다름슈타트에 머물던 외교관의 딸이자 대공가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던 한 여성은 다름슈타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비꽃과 백합이 자라는 계곡에는 아름다운 너도밤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또 말을 타고 몇 마일은 질주할 수 있을듯한 모래로 짙은 경주로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늘어져 있었다.다름슈타트 마을 자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고요했다. 다름슈타트 마을은 넓은 거리에 밤나무 가로수가 심어져있고 마을에는 라일락,라임 나무들의 정원을 가진 작고 예쁜 집들이 있었다."

헤센 대공령은 1차대전이후 다른 독일의 공국들처럼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대전때는 다른 독일지역들처럼 나치의 영향력아래 들었던 곳입니다. 다름슈타트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상점을 폐쇄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치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헤센의 대공 루드비히4세와 엘리스 공주의 큰딸이었던 빅토리아는 나치지지자들이 넘쳐나는 고향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저런 모습을 보지 않으셔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2차대전때 헤센지역은 엄청난 폭격으로 중심가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헤센 대공가의 거처 대부분이 파괴되었는데, 시내 한가운데 있었으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이 헤센대공가의 거처중 하나인 레지덴츠홀로써였습니다. 이때문에 다름슈타트에서는 매우 유명한 건물로, 모든 건물이 파괴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건물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 1944년의 다름슈타트 중심부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유튜브에 올라온 1970년대의 다름슈타트 전경

#### 1. 다름슈타트는 어디에 있나?

다름슈타트는 독일 헤센주에 속한 도시로, 프랑크푸르트/라인-마인( *Frankfurt/Rhein-Main*)지역의 도시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들은 라인강과 마인강 사이에 있기에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고 가장 중심도시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 프랑크푸르트/라인-마인 지역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다름슈타트가 보입니다.

....--;;베르나도트 전기에서 맨날 전쟁하던곳이군요.

## 2.다름슈타트의 관광행사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

다름슈타트의 관광행사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있습니다만...독일어입니다.-0-;;

올해의 관광 행사에 대해서도 나와있지만 불행히도 독일어인 관계로 패스입니다.

가시는분들은 <http://www.darmstadt.de/darmstadt-erleben/touristinfo/aktuelles/index.htm> (독일어)를 참조해주세요. π.π

참고로 이를테면 투어상품중 하나는 요리와 함께하는 다름슈타트 여행..인듯합니다-0-;;; 자세한 내용을 클릭하면 의외로 좋은 내용을 건질 수도 있는듯합니다. 저기 링크에서 찾아들어가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3.다름슈타트 카드

다름슈타트에서는 다름슈타트 관광을 편하게 하기 위해 "다름슈타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교통카드로 일정한 구역의 교통시설을 일정한 기간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으며,다름슈타트의 여러 관광지에 대한 할인이나 무료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는 카드인듯합니다.

### a. 혜택

2일간 쓸수 있는 카드로 , 다름슈타트 도시 중심 지역인 zone 40구역내의 교통편을 무제한으로 탈수있습니다.

Darmstadt Marketing GmbH에서 운영하는 가이드 관광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쪽 링크에 있는 그 관광코스인듯합니다.)

박물관이나 여러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해줍니다.

할인 대상 :Schlossmuseum, Hessisches Landesmuseum, Museum Jagdschloss Kranichstein, Kunsthalle Darmstadt, Museum Künstlerkolonie Darmstadt, die Russische Orthodoxe Kirche der Hl. Maria Magdalena, Hochzeitsturm, Wella Museum, Vivarium Darmstadt, Eisenbahnmuseum, Altstadt Museum Hinkelturm u. v. m.

b. 가격

1인당 9유로입니다.

c. 판매처

다름슈타트 샵 ( Darmstadt Shop ) 에서 살 수 있는듯합니다.

### 3.다름슈타트 샵(Darmstadt Shop)

이곳은 단순한 기념품 가게가 아니라 다름슈타트의 관광정보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가지 관광정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 티켓들과 투어 숙박안내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인터넷으로 다름슈타트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armstadt.de/darmstadt-erleben/touristinfo/darmstadt-shop/index.htm>

를 참조해주세요.

a.주소

Darmstadt Shop im Luisencenter

Luisenplatz 5

64283 Darmstadt

b.전화번호

Tel. 06151-134513

c. E-Mail

[information@darmstadt.de](mailto:information@darmstadt.de)

d.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4월-9월)

오전10시에서 오후 2시 (그외)

...일요일은 노나봅니다.

### 4.중심가의 관광지

a.루이젠프라츠

다름슈타트 중심가에 있는 광장으로 루드비히2세의 동상이 있는 광장입니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박물관이나 대학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b.레지덴츠슐로츠

2차대전때 폭격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중심가에 있던 헤센대공가의 거처였습니다.

c.마틸데 언덕과 그 주변지역

마틸데 언덕은 다름슈타트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헤센의 마지막 대공인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예술을 사랑했기에 다름슈타트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었죠. 이곳에는 두개의중심건물이 있는데, 결혼서약의 탑과 러시아 정교회 성당입니다.



레지던츠슐로스

자료출처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armstadt-Schloss\\_Marktplatz.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armstadt-Schloss_Marktplatz.jpg)





마틸데 언덕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

사진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Mathildenhoehe\\_Russische\\_Kapelle\\_Pano\\_1.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Mathildenhoehe_Russische_Kapelle_Pano_1.jpg)



마틸데 언덕의 결혼서약의 탑인가 하는 탑

사진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armstadt\\_Mathildenhoehe.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armstadt_Mathildenhoehe.jpg)

## 5. 다양한 행사들

다름슈타트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세가지 행사는 유명한 행사입니다.

### a.Heinerfest

이 행사는 독일에서 두번째로 큰 축제로 여겨지는 행사라고합니다. (첫번째는 뮌헨에서 맥주마시는 그 축제-0-;;일듯합니다..옥토버페스트였나..이름이 기억이..-0-;;)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올해가 60주년이었다는데..뮌헨의 그 축제보다는 전통이 덜하군요..

어쨌든 맛있는거 먹고 재미있는거 보는 축제인듯합니다.

이 축제는 주로 6월 말에서 7월초에 개최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는듯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7월 1일에서 5일사이였습니다.

### b.Schloßgrabenfest

이건 대중 노래하는 축제인듯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0-;;;

홈페이지도 독일어라...ㅎㅎㅎㅎ

주로 5월에 열리는 무료 공연이라고 합니다.

## 6.다름슈타트로 가는 교통편

### a.기차

프랑크푸르트나 마인츠,하이델베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다름슈타트로 갈수 있습니다.

### b. 비행기

다름슈타트는 자체 공항이 없고,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 가까운 공항입니다. 이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30분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다름슈타트행 셔틀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오전4시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운행하며 가격은 7.3유로(성인)/5.8 유로(어린이) 입니다.

#### 자료출처

1.다름슈타트 시청 홈페이지

<http://www.darmstadt.de/> (독일어)

2.위키피디아

3.위키가이드

4.관광정보사이트 RMV.DE

[http://www.rmv.de/coremedia/generator/RMV/Tickets/Fahrkartensortiment/Sonstiges/LokaleFahrkarten/FAHRK\\_LOK\\_12\\_I](http://www.rmv.de/coremedia/generator/RMV/Tickets/Fahrkartensortiment/Sonstiges/LokaleFahrkarten/FAHRK_LOK_12_I)

####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ㅎㅎㅎ 볼프스가르텐 정보를 찾았는데 어떻게 가는지 만나와있군요..알아서 잘 가야하는듯합니다.

사실 문제가 볼프스가르텐이 다름슈타트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랑엔(Langen)이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이죠.(다름슈타트로 찾으니 안나오는 이유가 있었다는...ㅠ.ㅠ)

보면 위치가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중간에 있습니다. (그곳이 랑엔)

.....결국 이 정보는 "랑엔"관광정보로 들어가야하는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볼프스가르텐은 헤센대공가께!!라는 고정관념이 있기때문에 다름슈타트 관광정보라고 우길렵니다...--;;

#### 솔로스 볼프스가르텐

솔로스 볼프스가르텐은 원래 헤센 대공가의 사냥용 별장으로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약 15km떨어진 곳이죠. (다름슈타트와 프랑크푸르트 중간쯤됩니다.) 이곳은 헤센-다름슈타트의 란트그라프였던 에른스트 루드비히가 18세기에 세운곳입니다. 이곳을 세운 이유는 사냥에 개를 사용하는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에른스트 루드비히가 사냥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곳이라고 하네요.-0-;; 그가 죽은후 1830년대까지 이 곳은 비어있었지만, 이후 헤센 대공가가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헤센의 루드비히4세와 그의 아들이자 마지막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가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자신이 원하는 현대식으로 꾸몄습니다. (이때문에 경악한 왕족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ㅎㅎㅎ)

1차대전이후 헤센은 공화국이 되었고,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그 가족은 주로 이곳 볼프스가르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헤센대공가의 마지막 구성원이었던 마르가레타 공비(마거릿 게디스,헤센의 루드비히의 부인)가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헤센대공가는 직계가 단절되면서, 대공가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루드비히가 헤센-카셀가문의 모리츠를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헤센-카셀의 모리츠는 헤센 대공가의 수장이 되면서 헤센 가문 전체의 수장이 됩니다. 이때문에 그는 헤센의 란트그라프라는 칭호를 씁니다.

이곳은 헤센 가문의 공동소유인듯합니다. 또 성 자체는 1997년부터 모리츠의 개인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거주지이기때문에 함부로 개방하지 않는듯합니다..ㅠ.ㅠ 일년에 3일간 특별 박람회를 할때만 개방하는듯하네요...흑.....

지난번에 보니까 와인 사업하는듯하던데..와인사업 번창하셔서 개방일수 팍팍늘려야할텐데 말입니다.





볼프스가르텐의 정원

## 관광정보

### 1.가는법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냥 프랑크푸르트에서 랑엔가서 대충 가면 될듯은 합니다 (아니면 한방에 가는 버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정작 안 나옵니다... 지도로 보서는 랑엔가서 걸어가도 될듯은합니다만..ㅠ.ㅠ)

...관광정보 맞아-0-;;;

### 2. 개방

"The Princely Gardening Event at Wolfsgarten Castle"

이 특별 전시회는 주로 농업에 대한 박람회인듯합니다. (저도 가드닝을 해볼까요..ㅠ.ㅠ)

매년 9월의 3일동안 개최되는 이 박람회때 특별히 볼프스가르텐 성이 개방됩니다.

(2010년에는 9월 17일-19일 3일간입니다.)

#### a.개방시간

금요일에서 일요일 오전10시에서 오후6시

#### b.요금 (박람회 프로그램과 카탈로그 주차 포함, 저녁제외)

성인 : 14유로 (14세 미만 어린이 무료)

할인 : 12유로 (장애인및 30세 미만의 학생)

단체 : 12유로 (최소 20인 이상, 한번만 가능)

전체권(All-days-ticket :아마 박람회 전체 기간동안 통용 가능한 티켓인듯합니다.) :24유로



### 3. 솔로스볼프스가르텐에서 볼만한곳

성의 안쪽을 개방하는지 모르겠군요.....π.π 웬만하면 개방하시지..π.π

참고로 성 어딘가에 그 유명한 흰색 옷을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전 왕족들이 머물면서 벽에 자기이름을 새겼다는 그 집의 벽을 보고 싶어요...



볼프스가르텐 성안에 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

#### 공주의 집(Princess House)

볼프스가르텐의 아름다운 정원중 제일 아름다운곳은 바로 이 공주의 집입니다. 이곳은 헤센대공가의 마지막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가 첫번째부인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엘리자베트를 위해 세운 어린이용 집입니다. 마치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작은 난장이들의 집처럼 아이들의 몸크기에 맞게 설계된 집입니다.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딸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는 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딸이 태어난지 육개월이 되었을때 딸이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 있다고 우길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인과 이혼한후 상심한 딸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했죠.

이 아름다운 집에서 엘리자베트는 사촌들과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은 급성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이후 이 집에서 에른스트 루드비히의 두 아들들인 게오르크 도나투스과 루드비히가 행복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딸 엘리자베트와 함께 있는 대공 에른스트 루드비히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첫번째 부인인 빅토리아 멜리타의 딸 엘리자베트 애칭 "엘라"

자료출처

1.슐로스 볼프스가르텐 홈페이지

<http://www.das-fuerstliche-gartenfest.de/index.htm>

2.위키피디아

그림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다름슈타트는 헤센대공가 거주하던 도시답게 대공가와 연관된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곳중 한곳이 바로 로젠히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장미언덕쯤으로 번역될수 있는 이곳은 헤센대공가의 묘역이 조성된곳입니다.

하지만 묘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각품등도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앨리스 왕자비 전기를 읽을때, 헤센대공가의 비극에 대해서 나오면서 앨리스가 로젠히에에 방문한 이야기가 나올때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치는 마틸데히에옆인듯합니다.^^\*

불행히도 이곳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몽땅 독일어입니다...ㅠ.ㅠ

결국 또 구글번역기님을 애용했습니다. -0-;;;



로젠히에의 입구

로젠히에는 원래 1810년경 헤센의 대공 루트비히2세의 부인인 바덴의 빌헬미나가 조성한 공원으로 작은 부속건물과 아름다운 정원, 포도밭등

이 있던곳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옛건물은 현재 찻집으로 이용되고있다고 합니다.



헤센의 빌헬미나 대공비

바덴의 빌헬미나

그녀의 언니들은 바이에른의 왕비, 러시아 황후, 스웨덴 왕비등이었습니다.

사촌인 헤센의 대공과 결혼했으나, 아래 두 아이인 알렉산더(바텐베르크가문의 시조)와 빌헬미나(러시아의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황후)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시종무관의 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826년에는 헤센대공가의 전통적 묘역이 이 공원에 포함되었고, 1910년에는 헤센의 루드비히4세와 그의 부인인 영국의 앨리스 공주와 미리 죽은 두 자녀를 위한 묘지인 *Neue Mausoleum* 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헤센 대공가의 가족 모두가 여기 묻혔는데, 특히 마지막 대공 에른스트 루드비히의 딸인 엘리자베트의 묘라던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헤센대공가의 가족들(에르니의 부인인 엘레오노레 대공비와 아들인 게오르크 도나투스, 며느리인 그리스의 세실, 두손주들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사고 한달전에 사망한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나란히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세실과 게오르크 도나투스의 딸이자 수막염으로 사망한 요한나의 묘라던가 헤센대공가의 마지막 인물들인 루드비히와 마르가레테 공비 역시 이곳에 묻혀있습니다.



헤센의 엘리자베트  
대공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그의 첫번째 부인 빅토리아 멜리타의 딸  
헤센 전통의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로젠히에에 있는 엘리자베트의 묘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어린 딸의 죽음에 너무나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딸의 장례식에서 딸의 관을 백마가 끄는 꽃으로 장식된 마차에 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딸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했습니다.

저 청동조각 역시 에른스트 루드비히의 의뢰로 만든것으로 사랑하는 딸이 저 천사의 보호아래 누워있길 바랬을듯합니다.

로젠히에는 헤센대공가 궁전이 있었지만, 2차대전때 폭격으로 이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은 1976년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또다른 유명한 조형물은 Löwentor라고 불리는 벽돌로 만든 사자상들의 모음과 로젠돔이라고 불리는 장미로 장식된 철제 돔입니다. 특히 로젠돔역시 파괴되었지만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재현했다고합니다. 이곳에는 독일 전역의 장미 품종과 유럽의 장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허브정원도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본 로젠덤





## Eingang Löwentor

로젠히에로 들어가는 또다른 입구랍니다.

로젠히에에 대해 열정을 쏟은 사람은 헤센의 마지막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였습니다. 그는 가족 묘지이자 공원인 이곳을 무척이나 아름다운곳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이 공원의 재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은 "로젠히에"라는 책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 관광정보

### 1.위치

#### 다름슈타트

....아마도 마틸데언덕(마틸데히에)에서 걸어가도 될듯합니다.

Bernhard-Sölzer-Platz 뒤쪽인듯한데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가봐야 알죠..ㅠ.ㅠ)

....정말 관광정보 맞아..ㅠ.ㅠ



### [크게 보기](#)

어설픈 위치정보를 만회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 "구글 위성지도"

....정작 봐도 모르겠다는...ㅠ.ㅠ

### 2.교통편

지하철 : Haltestelle Ostbahnhof 에서 내리면 되듯



버스: L, K55, K56, K71, 5501, 5502, 5503, 5507, 5510

### 3.요금

무료

### 4.개방시간

연중무휴 하루종일 개방

### 5.무료투어

다름슈타트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투어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기부는 환영이랍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독일어라 뭐라해야하는지는 책임 못집니다..)

F□rderverein Park Rosenh□he , Gesch□ftsstelle Tel.: 06151/55150

Gr□nfl□chen- und Umweltamt der Stadt Darmstadt, Tel.: 06151/132900

Darmstadt Marketing, Tel.: 06151/95150-0



여름의 로젠회에



에른스트 루드비히가 지은 *Neue Mausoleum*

이곳에는 루드비히4세와 앨리스 공주 그리고 두 자녀인 프리드리히와 마리가 묻혀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살아있을때는 이곳이 없었습니다만, 여왕은 딸이 죽은후 다름슈타트에 올때마다 마지막으로 딸의 묘를 들른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옆쪽에서 본 모습



사자상을 가까이서 본 모습

#### 자료출처

1. 위키피디어 Park Rosenh he [http://de.wikipedia.org/wiki/Park\\_Rosenh%C3%B6he](http://de.wikipedia.org/wiki/Park_Rosenh%C3%B6he) (독일어)
2. [Park Rosenh he Darmstadt](#) (독일어)
3. [Park und Rosengarten Rosenh he](#) (독일어)

#### 그림출처

로젠훔예에 대한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중 Rosenh he Darmstadt

[http://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Rosenh%C3%B6he\\_Darmstadt](http://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Rosenh%C3%B6he_Darmstadt)

나머지

역시 위키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난해한 하일리겐베르크를 할까 아니면 마틸데회예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루이즈왕비 팬인데...-0-;;  
라는 생각으로 하일리겐베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ㅠ.ㅠ

이곳은 진짜진짜 난해한곳인데,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관공서가된듯해서요..-0-;;

이곳역시 다름슈타트시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작은 도시인 지하임-유겐하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때문에 다름슈타트 관광정보에는 잘 나오지 않죠.-0-;;

다행히 얼떨결에 다름슈타트 역사지구에 대한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여기 설명이 있을줄 알았더니 지하임-유겐하임시 홈페이지로 가세요...라고 되어있더군요.

...거기 홈페이지.....좌절입니다..ㅠ.ㅠ

(독일어...ㅠ.ㅠ 관광정보도 없는거 보니 예약해야하는듯...ㅠ.ㅠ)

이지역이 오덴발트(Odenwald)지역인지라 아무래도 그쪽 광고에 치중하는듯합니다...ㅠ.ㅠ

(오덴발트 지역은 주로 헤센지역에 걸쳐있는 낮은 산악지대를 따라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의 자연환경이 그렇게 빼어나답니다.-0-;;)

하여튼 좌절의 하일리겐베르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솔직히 관광정보라고 쓰기에는 좀..-0-;;)

유겐하임의 하일리겐베르크 성





유겐하임에 있는 바텐베르크가문의 집이었던 하일리겐베르크 성  
 엘리스 왕자비 전기에는 엘리스가 늘 "집"이라고 여겼던 곳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 공주 전기에는 "베아트리스 공주의 마음의 집"이라고 언급되구요.

유겐하임에 있는 솔로스 하일리겐베르크는 원래 농가였던곳으로, 헤센의 루드비히2세의 부인인 빌헬미나 대공비가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살기 위한 성으로 개조한것이 시작입니다.

빌헬미나 대공비의 밑의 두 아이들은 대공의 친자식이 아니고 그녀의 시종 무관의 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캔들을 원치 않았던 대공이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인정했다는것이죠.이 이야기는 이미 아이가 태어났던 때부터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영국까지 전 유럽의 궁정이 다 아는 소문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과 빌헬미나 대공비는 헤센 대공가가 지내던 다름슈타트에서 약간 떨어진 유겐하임에 있는 이 하일리겐베르크에서 살았습니다.

이 하일리겐베르크는 헤센의 알렉산더 공이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천상혼한 부인인 바텐베르크공비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다름슈타트 시내에 있는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헤센의 알렉산더 공과 부인인 바텐베르크 공비

오빠 알렉산더와 제일 친했던 러시아의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황후는 가족과 함께 하일리겐베르크를 자주 방문했고, 헤센 대공가의 나머지 가족들도 이곳에 자주 들렸습니다. 이때문에 후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가족들 역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죠. (알렉산더의 조카 며느리가 바로 빅토리아여왕의 둘째딸인 앨리스 공주이고, 알렉산더의 조카이자 마리아 황후의 딸인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여대공은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아들인 앨프리드와 결혼했습니다.)





헤센의 알렉산더의 여동생  
러시아의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황후  
알렉산드르2세의 황후

이후 바텐베르크 가문 사람들이 이곳을 자신들의 집으로 여겼습니다. 영국에서 살았던 알렉산더의 아들 루드비히 역시 이곳을 집으로 여겼으며, 여름마다 이곳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왕결을 거의 떠나지 않았던 베아트리스 공주 역시 남편과 아들 알렉산더와 함께 이곳에 머문적이 있을정도였습니다. (..그때 베아트리스공주가 성에 불냈습니다.-0-;;)

이 성은 가문의 장남이었던 바텐베르크의 루드비히가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1차대전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루드비히는 이 성을 팔았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이 성은 교육과 관계된일에 사용되고 있으며(관공서인듯해요. 독일어를 몰라서 대충 눈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ㅠ.ㅠ) 이곳은 정원은 전시회등을 위해 개방되기도 합니다.



#### 바텐베르크 가문의 형제들

차례로 마리,루드비히,알렉산더,하일리히,프란츠요제프입니다.

첫째는 마리로 후에 에르바흐-윈베르크 공비가 됩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네덜란드 엠마 왕비와 빅토리아 여왕의 며느리인 알바니 공작부인 헬레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둘째는 루드비히로 후에 1대 밀퍼드헤이번 후작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이 됩니다. 딸인 루이즈는 스웨덴 왕비였고, 외손자는 바로 필립공이죠 셋째는 알렉산더로 오스만에서 독립한 불가리아의 첫번째 통치자였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습디만,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의

반대로 결국 퇴위해야했습니다.

넷째는 하인리히로, 빅토리아 여왕의 막내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인리히의 딸인 예나는 스페인의 왕비로 현 스페인 국왕의 할머니입니다.

막내는 프란츠 요제프로 몬테네그로의 안나와 결혼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긴하지만, 그는 군인이 아니라 학자로 살았습니다.

이성의 정원은 원래 현재 울타리가 있는 곳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이국적 식물들이 있다고 하네요.

하일리겐베르크 주변에는 몇몇 관광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먼저 11세기에서 12세기 건설된 수도원 유적지와 그에 딸린 작은 부속교회가 있습니다. 14세기 수도원이 폐쇄되면서 수도원은 폐허가 되었지만, 부속교회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는 빌헬미나 대공비가 세운 금빛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어려서 죽은 대공비의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반짝이는 금박은 라인강 건너편 멀리서도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바텐베르크가문의 시조인 헤센의 알렉산더와 그의 부인인 바텐베르크 공비의 묘라고 합니다. 이곳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특별히 만들어진 영묘로, 엘리스 왕자비의 전기에 보면 이곳으로 남편의 관을 이장할 때 "바텐베르크 공비가 슬픈 눈으로 관을 바라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의 관광정보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하일리겐베르크가 관광지가 아니라 관공서같다는 점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요금이나 개방시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대충 정원은 들어가도 되는 듯한데, 건물 안에는 들어가도 되는지 안 나오네요..(게다가 독일어라 찾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특별히 관광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료출처

1. 위키 피디어(독일어) : Schloss Heiligenberg(Jugenheim)

[http://de.wikipedia.org/wiki/Schloss\\_Heiligenberg\\_\(Jugenheim\)](http://de.wikipedia.org/wiki/Schloss_Heiligenberg_(Jugenheim))

2. 지하임-유겐하임 행정구역의 홈페이지 (독일어)

<http://www.seeheim-jugenheim.de/>

3. Alice : Princess Andrew of Greece (2001, Hugo Vickers)

####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http://en.wikipedia.org/wiki/File:Seeheim-Jugenheim-Heiligenberg-Schloss.jpg>

[http://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House\\_of\\_Battenberg](http://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House_of_Battenberg)

## 다름슈타트를 향해!!

엘의 주절주절 <http://blog.daum.net/elara1020> 블로그

엘 저자

2011.01.31 01:22:42 발행일

 블로그